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농어촌수도 해남 육성”

2025년 해남군 현황·주요 역점사업

#현황

- 인구수 6만3280명
- 예 산 8973억원
- 직원수 1000명

#역점사업

- 2030 프로젝트 추진
- 신재생에너지 중심 기업 유치
- 교육발전특구 정주여건 개선
-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 솔라시도 주거단지 조성
- 의료·문화 정주여건 확충



2025 새해설계

명현관 해남군수

녹색융합 클러스터 국책사업 본격 추진
쌀·배추·고구마·김 4대 농수산물 가치 ↑
저탄소·항암·항당뇨 특화사업 발굴 주력
본예산 32% 농림해양수산 분야 집중 투입

“농어업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농어촌수도 해남’을 육성하겠습니다.”

명현관 해남 군수가 7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은 을 사년 새해 구상을 밝혔다.

명 군수는 “해남의 농어업이 전국 최대의 경지면적 과 청정 땅끝바다, 선도적인 농어업인의 조화를 통해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책임져왔다”며 “새해에는 기존의 농어업 역량을 총결집해 농림해양수산업의 고도 화와 신산업 전환을 통해 지역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해남군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농업연 구단지 중심의 수산기자재클러스터, 김치원료 공급단지, 탄소중립 에듀센터,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 성 등 주요 국책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 다.

이를 통해 농어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후변 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 이다.

쌀, 배추, 고구마, 김 등 4대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 치를 높이고 저탄소·항암·항당뇨 특화사업 발굴과 경



명현관 해남군수.

쟁력 있는 신작목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수산업 을 실현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안전 먹거리 가공, 온·오프라인 유통 개선, 관광과 체험을 융합한 복합화 전략, 수출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농어업 모델을 구상 중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바탕으로 장기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데이터센터파크, 해상풍력배후단 지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업 유치와 신산업 육성 에 주력하며 교육발전특구는 교육과 보육, 일자리 연 계를 통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예 정이다.

명 군수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단기간 에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미래세대와 지역발전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며 “20년, 30년 후를 내 다본 기반을 꾸준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올해 본예산 8973억원 중 32%를 농림해 양수산 분야에 투입하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경 제, 복지, 기초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국·도비 예산 3595억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에 탄력을 더할 예정이며,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조성고 신안 압해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 침체 극복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 안전망 구축,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제 공, 해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조기에 추진한다.

생활인구 증대와 머무르는 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관광개발사업과 스포츠마케팅 기반 확 충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국내·외 불 안정한 정세에도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자세로 위 기를 기회로 바꾸며 으뜸 해남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더 큰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 올해부터 출생기본수당 지급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

해남군은 올해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출생기본수당 지원 대상은 해남에 출생 신고를 한 2024년생 아동으로, 출생아 및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신고일 기준 해남군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월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전남도 보 조금으로 10만원, 해남군이 군비로 10만 원을 더했다.

신청은 1세가 되는 날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

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 올해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은 한시적 제도로 2026년부터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지난해 초저출산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해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월 중 ‘해남군 출 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출생기본수당 지급 기준으로 해남 군에서는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 가지 않는 한 2025년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4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 다.

명현관해남군수는 “출생기본수당이학 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 성 있는 출산정책인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지방소멸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해남군의 정책인 △신생아 양육비 △첫만남 이용권 △기저귀 구입비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교육수당 등 연령별 지원도 올해 변함 없이 실시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지역상품권 60만원

해남군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에 지급한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 공익 수당은 오는 2월7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한 달 가량 빨라졌다.

신청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 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지난해 1 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 내에 거주 하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 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 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처분받 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 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 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마을 이장을 통하거나 직접 주소 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 1회 60만원을 해 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업·농촌의 공익 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는 침체된 지 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농어민 공 익수당 지급을 조기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 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2020년부 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해 전남도 공 익수당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관내 1만5458명에 대해 92억 7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 구시터널 안전시설물 보강

터널 내 배수로 정비 완료

겨울철 잦은 사고 발생으로 우려가 컸 던 해남군 현산면 구시터널의 개선 공사 가 완료됐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겨울철 수차레 크 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현산 구시터널 개선을 위해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 문을 의뢰하고 도로관리청인 광주국도관 리사무소에 지속적인 건의를 실시해 사업 추진을 이끌어냈다.

현산 구시터널은 국도 13호선에 위치 한 터널로 광주국도관리사무소 해남출장 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3억원을 투입해 해남출장소에서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노면의 경사도를 바로잡아 배수 및 미끄럼 저항을 향상시켰고 터널 내 배수로 정비와 가드레일 등 안전 시설



해남군 현산면 구시터널.

해남군 제공

물을 보강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 사업으로 현산 구시 터널의 안전한 통행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현산 구시터널은 지형상 겨울철 눈이 잘 녹지 않아 무엇보다

다도 운전자의 서행 등 안전운전이 겨울 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지 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 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입주작가 모집

2월 1일부터 문학 전 분야 접수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에서 2025년 상반기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모집 분야는 시 (시조), 소설, 수필, 평론, 번역, 희곡, 아 동 및 청소년 등 문학 전 분야이다.

신춘문예나 문학전문지 등을 통해 등 단한 지 3년 이상 된 자이면서 10년 이내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기성작가나 앞 으로 훌륭한 작가가 될 가능성을 인정받 아 등단작가 혹은 지도교수의 추천서 제 출이 가능한 예비작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작가는 소식지 발간 시 원고 제출 (필수), 입주작가 소개 영상 제작(선택) 등의 입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월1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할 수 으 며 선정된 작가는 3월부터 입주할 수 있 다.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부터 최장 6개 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 항은 해남군 및 백련재 문학의 집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백련재 문학의 집은 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총 8 실의 전용공간을 갖추고 해남군에서 직영 하는 시설이다.

해남=전연수 기자